

## 기구 판매업소는 양봉 농가를 먼저 생각하자 질병의 온상인 중국 수입 소비저지...



최규철 사무총장

5~6년 전부터 양봉업계에서는 각 시·도·군 지자체별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어 많은 발전을 해 온 것이 양봉업계의 현실이다.

그간 각 지방별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들에게는 사양기구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기구 판매업자들은 다양한 기구를 개발하여 선진 양봉사양관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자부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양봉농가들에게는 생산비가 증가되었으며 최근 4~5년 아카시아꿀 흉작과 잦은 사양기구 교체 등으로 양봉농가들에게는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4~5년간 사양기구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판매되었으나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장기적인 실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관계로 양봉농가들은 몇 년 가지 못해 새로운 제품을 다시 구입해야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기구 판매업소는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양봉농가가 살아야 기구 판매가 살아남는다는 원칙을 잊지말고 너무 많은 폭리와 내 물건만 고가로 팔면 된다는 식의 영업형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각 지방별 보조사업은 일시적인 지원형태를 떠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미래 양봉산업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연구개발하고 양봉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한 시·군 단위별 특화단지(공장, 연구소, 제품개발 등)를 설립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양봉산물이 소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생산비절감과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

해 지역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 단위 밀원수를 식재하여 고정양봉의 형태로 전환하여 양봉농가가 생산한 양봉산물등이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보조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농업의 정세는 수입개방을 요구하는 한·아세안(10개국), 한·캐나다, 한·미 FTA 협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한·아세안(10개국) FTA는 지난 16일에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양봉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WTO-DDA협상 등이 모든 농업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양봉산업은 243% 관세막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는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할 전망이어서, 이제 양봉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되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준비합시다.

기구 판매업대표자자들은 양봉업에 종사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구판매업자들은 정직한 제품 제작과 홍보, 그리고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여 생산농가와 기구판매업소가 공생하는 영업 전략을 펴 함께 살아 갈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0000도 보조사업 일환으로 중국에서(중국 양봉농가 별통을 이용하여) 소비를 30%~40%의 완성된 소비를 제작하여 국내양봉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지원 사업이 진행되던 중, 본 협회에서는 별집소비가 국내에 반입 될 경우 각종 세균성 질병 발생 등을 우려하여 협회 임원 및 시·도지회장 연석회의와 관계기관/단체장(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한국양봉 조합장), 학계(장영덕 명예교수, 윤병수 경기대교수, 차용호 박사) 등의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수입소비는 절대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팽배하고, 협회 역시 소비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하여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펴왔습니다.

한편 소비수입 판매업자와 뜻을 같이한 몇몇 양봉인들까지 합세하여 약 200여명에게 국내반입을 위한 서명을 받아 검역원에 제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양봉인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 수입 소비판매업자는 양봉농가가 차후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든 말든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식의 행동을 취해 마치 협회와의 대립의 양상으로 비취짐으로써 한 지붕 2가족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소비수입판매업자와 몇몇 양봉인들의 말만 듣고 서명한 양봉인도들은 이러한 심각성에 알고 수입저지에 결사반대한다는 의지 표명에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봉협회는 양봉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개인 한사람을 위한 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 수입업자는 알아야 할 것이며, 차후 소비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 없는 각종 세균성 질병 발생 등으로 생산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협회와 양봉농가 힘으로 막아온 꿀벌수입(중국, 호주, 뉴질랜드 꿀벌) 북한산 벌꿀, 방역비지급 등이 중

국에서 완성된 수입 소비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우리 농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 인가를 우리 다 같이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수입소비 판매업자는 생산농가가 없는 협회는 기구 판매업소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완성된 소비수입을 자제하고 국내 미래 양봉산업발전과 양봉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자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 수입소비에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학계의 의견

###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의견

벌집(소비)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밀랍에는 미국부저병, 유럽부저병, 노제마 병, 백목병 병원균 등 각종 병원균 포자가 혼입될 수 있다. 이러한 벌집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들 질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부저병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 균주가 발생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외국의 병원균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벌집의 수입 및 지역간 유통은 세계적으로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부득이 외국에서 벌을 수입할 경우에는 검역을 거친 후에 벌만 털어서 별도 상자에 담은 이른바 '패키지 벌'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소초로부터 부분 완성된 벌집은 일부 꿀 저장 및 산란이 가능해져 병원균의 잠복 위험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외국 벌집 수입을 철저히 규제하여 국내 양봉생산과 화분매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귀중한 꿀벌을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 ■ 황창연 한국양봉학회장 의견

「국립수의과학원공고 제2006-45호(06.4.7)」의 개정안에 따르면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양봉에 사용하는 소비(벌집)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소비는 일벌이 분비하는 밀랍으로 벌통 내에서 스스로 만들며 꿀과 화분 저장과 산란, 육아 장소로 이용된다. 저번 회신 내용에 포함된 사향과 덧붙여 갓 조소된 소비에도 다소의 저밀과 산란된 알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OIE에서 제정한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005의 2.9.2.6 항에는 꿀벌의 알(유충, 번데기 포함)에 대하여 수입국에서는 미국부저병과 유럽부저병에 대하여 비발생 지역에서 유래되었거나 또는 검역소의 격리된 여왕벌에서 나온 것(유럽부저병균은 *Melissococcus pluton*의 무균임을 추가 증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수출국은 이를 증빙해야 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비에 산란된 꿀벌의 알(어린 유충포함) 및 밀랍, 저장 꿀·화분에 대한 OIE규정에 따라 「농림부고시 제2004-63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에 의거,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검역물에 포함될 소비에 대해 수입금지지역을 후속 지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차용호 농학박사(국립 상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축산학과) 의견

최근 친환경 양봉을 채택하여 고품질, 안정성이 높은 양봉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전 양봉인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동물용 약제에 대한 사용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서 완성된 소비가 수입된다면 부저병, 백목병, 각종 응애,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기문응애 등 각종 꿀벌의 기생충과 질병의 피해가 예상되니 수입이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L Ilmann은 벌꿀에 대해, 다년간 항생제 잔류에 대해 독일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조사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벌꿀에서 부저병 예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항생제의 검출이 1998년 Stretomycin을 시작으로 tetracyclin 및 Sulfonamide까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완성된 소비가 중국에서 수입됨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 ■ 장영덕 충남대 명예교수 의견

귀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현지에서 인공소초광을 봉군에 넣어 꿀벌들이 벌집을 완성 시킨 소비가 반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원생동물들은 물론 각종 기생동물들도 함께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동물검역법(꿀벌의 수입조건-위생)의 규정에 따라서 수입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꿀벌의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여,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관련기관, 담당자 등) 사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윤병수 경기대 교수(한국꿀벌질병 연구소장) 의견

최근 충청북도에서의 양봉기구 지원사업에 의해 중국에서 인공 소초광을 봉군에 넣어 완성된 소비가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국내에 미국부저병(ACFB), 유럽부저병(EEFB), 백목병(CB) 등 세균, 진균성 질병 및 가시응애 등 기생성 질병 그리고 DWV, ABPV, SBV등의 각종 바이러스성 병원균의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한국 꿀벌질병 연구소에서는 각종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타국의 사양기구 및 벌집의 수입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하며, 귀 기관의 수입 반대운동에 찬성의 뜻과 다방면에서 협조를 약속드리는 바이다.

## ■ 조상균 한국양봉농업협동 조합장 의견

꿀벌의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벌의 몸에 붙어 오는 방법과 벌집에 붙어 있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딱정벌레 같은 벌레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꿀벌의 수입시 상자 안에 벌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소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꿀벌 수입시 검역 잘못으로 92년도 중국의 절강성에서 꿀벌이 수입되어 가시응

애가 들어와서 제주도나 남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양봉인들이 매년 입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는다.

현재 밀빠진 딱정벌레나 벌의 기문에 붙어사는 기문 응애도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 왔지만 벌집 상자속에 일부 여왕벌과 벌을 조금 넣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세균성 질병도 외국것이 우리나라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변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벌집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는 우리의 양봉산업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방사선 조사를 해 온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더욱이 중국 벌꿀은 유럽 쪽에서는 항생제와 농약 같은 중금속이 함유된 것이 검출되다 보니 중국제품은 아예 1kg도 벌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현실이다.

호주에서는 같은 나라에서, 즉 타스마니아(제주도 같은 섬)에서 본토로 꿀 따러 이동은 가능하나 다시 타스마니아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벌통 전체를 다 처분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며, 자국 내에서 질병이 있는 곳과의 이동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국내는 2005년 말 현재 총 사육군수가 200만군이 넘었고 조합에는 순수한 꿀이 약 3,000드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양봉업계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초보다는 조소시킨 소비를 넣어주면 짧은 기간이지만 벌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오히려 벌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양봉업계를 지키는 일은 밀원수 식재와 품질고급화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외국의 새로운 질병유입을 막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꿀벌이나 벌꿀 화분 등 양봉산물도 검역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질병유입을 차단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되고, 앞으로 수입자유화 시대에 그나마 우리나라 양봉산업을 지키는 길이 되므로, 이번 기회에 벌집도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 축산신문 2006-05-02자 기사내용

### “질병 온상 벌집 수입 원천차단을”

“꿀벌의 질병 온상인 벌집 수입은 원천 차단돼야 한다.”

최근 한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소비’라고 불리는 벌집을 수입하자, 국내 양봉농가들은 해외 악성 질병으로부터 국내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집 수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봉업계는 지난 92년도 중국 꿀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시응애가 유입되어 국내 양봉산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점을 상기하고, 꿀벌 수입보다 해외 악성 질병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은 벌집을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봉업계는 특히, 양봉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꿀벌의 산란과 벌꿀 저장

장소인 벌집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간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벌집 수입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은 “해외 꿀벌 관련 질병 감염 등을 고려하여 호주나 뉴질랜드 등 양봉선진국의 꿀벌 수입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꿀벌 질병 방역을 위해 매년 3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하물며 각종 질병 온상인 벌집 수입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상균 양봉조합장도 “중국산 벌꿀은 항생제와 중금속 오염등을 이유로 유럽에서는 아예 1kg도 수입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벌집이 아예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봉 전문가인 차용호 상주대학교수는 “중국에서 벌집이 수입된다면 부저병, 백목병, 각종 응애,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기문응애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 및 지정 검역물의 범위”에 ‘소비’를 추가하는 검역원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다.

## ■ 축산신문(편집국장) 2006-05-02자 기사내용

### “꿀벌,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농촌에 꿀벌이 없다면...’

한마디로 우리 농촌에 벌이 없다면 농축산업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좀더 비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굳이 그 이유를 말한다면 벌은 농촌 식물 생태계를 지속 가능케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과도 같은 존재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 중요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 벌도 마찬가지다. 벌이 자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인간의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벌은 그런 자연 생태계의 매개체적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꿀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영양을 제공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벌이 요즘 시련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벌을 사육하는 양봉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벌집 수입 문제는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미래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논란은 한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벌집(소비(巢脾)라고도 함)을 수입,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발단이 된다. 양봉업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검역원은 수입 위생조건을 만들어 검역을 한 다음 수입토록하겠다는 방침 아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봉업계는 필쩍 쫓는다. 그럴만도 한 것이 벌집은 각종 질병의 온상으로서 검역이전에 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야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벌집이 수입된다면 부저병, 백목병, 각종 응애,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기문

응에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양봉 선진국에서도 벌집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92년에 중국의 꿀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시웅애가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양봉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아픈 기억이 있다. 현재 중국의 꿀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꿀벌도 아닌 벌집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각종 유해한 질병 온상을 국내에 고스란히 옮겨 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마치 호주산 생우를 우사채로 수입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다.

양봉업계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이 양봉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꿀을 딸 수 있는 기한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경영난에다 그나마 퇴직 공무원 등이 양봉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기존 양봉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토종’이란 이름으로 양봉이 설 자리를 좁게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한미 FTA마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국내 양봉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장래 소비자들의 먹거리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는 ‘웰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양봉산업은 웰빙에 걸맞는, 전도가 유망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양봉업계는 그런 미래가 오기 전에 무너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젖어 있다. 양봉업계가 벌집 수입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우선 양봉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농촌의 생태계를 지킨다는 큰 뜻도 담겨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 농민신문 2006-05-12자 기사내용

### “중국산 벌집 농가 구입 주의를”

한 수입업자가 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중국산 벌집을 판매하고 있어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전남 무안의 한 업자가 중국으로부터 꿀벌의 밀납이 40~50%가량 채워진 벌집(일반 벌집 높이의 반 정도)을 수입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벌집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벌집의 틀이라 불리는 ‘소초’는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만 형성된 벌집을 만들어 ‘소초’라 하고 들여온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산 꿀벌과 벌집의 경우 항생제 오·남용 문제와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중국산 벌집이 국내에 반입될 경우 자칫 신종 병충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값이 싸고 농가 경영비 부담이 적다는 업자 말만 믿고 이 벌집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어 많은 농가에 보급될 것을 우려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은 “1992년에 중국에서 벌집을 들여왔을 때 국내에 없던 가시웅애까지 함께 수입돼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면서 “농가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벌집을 아예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사료 및 지정 검역물의 범위에 완전한 형태의 벌집인 ‘소비’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양봉협회는 질병 전파의 위험이 큰 데다 벌집에 꿀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가능성까지 높다며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